"조형물 아냐, 낙석방지 시설인데…" 24일 광주시 서구 용두동 국가자전거도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낙석방지시설(높이 6m)이 무너져 내린 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도로로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원박람회장 적시는 '乙의 눈물'

순천시·시공사간 추가비용 놓고 힘겨루기
잔디업체 대금 7000만원 못받아 자금난 고통

순천시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하청업체만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수퍼 갑(甲)으로 불리는 자치단체와 '갑'인 원청 건설업체의 힘 겨루기에 을(乙)인 애꿎은 하청 업체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셈이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상록잔디영농조합원 36명은 지난 22일 정원박람회장 동문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시공사인 라인 건설을 상대로 "잔디 납품 대금 7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정원박람회장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여태껏 잔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박원준 상록잔디영농조합장은 "조충훈 시장이 지난 4월 조만간 해결해 주겠다고 해 참아왔는데 아직도 밀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박람회장에 심어놓은 잔디라도 모조리 뽑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시공사인 라인건설 측과 공사 대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순천시는 오천동 정원박람회장(부지 면적 111만2000㎡) 조성을 위해 시공사로 라인 건설을 선정해 기반 조성공사(공사비 1064억 원)를 비롯, 습지센터·한방체험센터 등 조성공사(1098억 원)를 맡겼다.

라인건설은 이후 박람회장 토목·조경공사를 토목 전문업체인 정희개발 등 6개 전문업체에 하청을 줬고 정희개발 측은 다시 은경조경이라는 업체를 선정, 잔디 공사를 맡겼다.

이후 은경조경은 정원박람회장 내 33만579㎡ 부지에 심을 7000만원 어치 잔디를 상록잔디영농조합에서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라인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상록잔디영농조합 등 하위 재하청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원박람회장 내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설계 내역 변경으로 30억 원이 넘는 초과비용이 발생했는데, 순천시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하청·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라인 건설 측 입장이다.

라인건설 측은 "순천시가 갑자기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선투자 비용이 발생한 만큼 순천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는 "지난달 29일 (라인건설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만큼 이후 문제는 원청과 하청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순천시와 라인건설 간 문제로 영세한 재하청업체들만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와 라인건설이 인건비·장비 임대료 등 공사비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거래 분쟁·조정·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놓고 있어 공사비 지급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순천정원박람회 관계자는 "다음달 3일 피해 업체들과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위조부품 241개…'불신의 核' 한빛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전체의 68%
'거짓 발표'로 재가동 의혹도

한빛(영광)원전 2·3·5·6호기에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241개가 납품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사항이 없다"며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졸속 검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전수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3기 원전 가운데 8곳의 부품 12만 5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9개 품목 355개의 부품에서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실태

※ 68개 품목, 355개 중 한빛원전 241개 최다(잠정)

한빛원전	2호기	13개품목	152개
	3호기	12개품목	45개
	5호기	3개품목	26개
	6호기	3개품목	18개

※ 제어케이블 위조 신고리 2호기·신원성 1호기→가동중단
수소제거장치 위조 적발 한빛 2·3·6호기→계속운행

조사 대상은 한빛 2·3·5·6호기를 비롯, 고리 4호기, 월성 4호기, 한울 2·5호기 등으로,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위조 여부가 확인 중이다.

한빛 2·3·5·6호기의 경우 모두 31개 품목 241개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적발 부품의 67.9%에 달하며 조사 대상 원전 중 가장 많다.

한빛 2호기 시험 성적서 위조 부품 수가 13개 품목 152개에 달해 가장 많았고 ▲3호기 12개 품목 45개 부품 ▲5호기 3개 품목 26개 부품 ▲6호기 3개 품목 18개 부품 등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납품됐다. 원안위는 최종 확인된 부품을 적정 부품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 위조 부품이 대규모로 한빛 원전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이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원전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정부 입김이 반영되면서 '거짓 발표'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한수원은 또 한빛 2·3·6호기 내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기기검증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지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운행키로 결정해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도서 트럭·승용차 충돌
1명 숨지고 2명 부상

23일 오전 7시30분께 진도군 군내면 군내삼거리 도로에서 장모(66)씨가 몰던 1t 트럭과 김모(18)군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사 장모(66)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김모(18)군과 함께 타고 있던 이모(19)씨 등 2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음주운전 단속 담당 경찰관
만취상태서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단속을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광주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빚어졌다는 점에서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23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산월IC 인근 도로에서 광주북부경찰 교통지도계 소속 황모(41) 경사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9% 상태였다. 경찰조사결과, 황 경사는 이날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1㎞ 가량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수완지구 등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혀 발표가 무색하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술취해 행패 부리고 "기억 안 난다"

쌍나팔

○…술에 취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리다 입건.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 21일 밤 10시40분께 부인이 사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 박모(여·33)씨의 빌라를 찾아가 부엌 싱크대 등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

○…김씨는 이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는데, 경찰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종업원 선불금 안갚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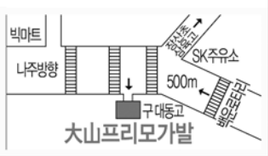
이른바 '티켓다방'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25)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대신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A다방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가격공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입학문의▶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6. 24(월) - 6. 28(금)
② 전 형 일 : 2013. 7. 4(목)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7. 8(월) 오전 10:00
④ 등 록 기 간 : 2013. 7. 8(월) - 10(수)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3	-
	석사	신학과(Th.M.)	12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2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5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